

## Focus Group Interview를 이용한 당뇨병 환자의 식사요법 실천에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분석

박혜련, 박동연, 안홍석, 최선정\*.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동국대학교 가정  
교육학과, 성신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아주대학교병원 영양팀

당뇨병은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성대사성 질환으로서,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슐린 비의존형 환자의 치료는 궁극적으로 만성합병증의 예방에 있는데 그 치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식사요법이다. 식사요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식사처방에 순응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한 연구에서는 대상환자의 70%가 식사요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당뇨병 환자의 행동변화를 통해 식사요법의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뇨병 환자가 처해있는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지 등을 통한 양적인 조사방법론을 배제하고 환자 스스로 관련된 문제들을 진술하도록 하여 발견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Focus Group Interview를 채택하였다.

서울·경기지역 3차의료기관 3곳에서 1997년 9월 - 1998년 3월까지 11회에 걸쳐 총 53명의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당뇨병환자의 식사요법 실천에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당뇨병환자들은 당뇨병을 평생관리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리를 잘하면 일상생활을 잘 영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둘째, 식사처방의 실천을 비롯한 치료지침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추상적으로 인식하여 구체성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식사처방은 매우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 실천의 자신감도 낮았다. 셋째,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인하여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등 생활의 커다란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당뇨병에 관한 지식은 본인의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원인, 합병증, 치료방법 등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진 특히 의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충분한 상담의 결여 및 환자의 개인적에 의한 경험에 의료진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존재하여 의료진의 처방이 환자의 행동변화로 나타나게 하는 직접적인 신뢰도에 편차가 컸다. 여섯째 직계가족 이외에는 사회적 지지가 낮았으며, 특히 가족들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식사요법의 실천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식사요법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식사처방을 어렵게 생각하는 자아효능감을 높이기 위하여 알기 쉬운 식생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당뇨병환자와 의료진 간에 증상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행동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당뇨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당뇨가족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